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26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폴더 5번)	180 (주님의 작은 그릇)	참 아름다운 그대 (폴더 10번)

제 1독서 | 집회서 35,15-17. 20-22

화답송 |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좌)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우)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좌)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

제 2독서 | 티모테오 2서, 4,6-8. 16-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8,9-14



오늘의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
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



<의사에게 알려 줄 것은 남의 증세가 아니라 자신의 증세다.>

참회는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치료제인지요! 자기가 한낱 인간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1베드 5,5; 야고 4,6; 참조: 욥 22,29; 잠언 3,3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사이는 자신의 건강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남들의 병과 견증으로써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의사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상처는 감추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백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에 견주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렸으니 말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설교집」 351.1.4

<용서받은 세리>

세리는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죽은 태도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마 말문이 열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짓에서 그가 자신의 악행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바리사이는 뻔뻔스럽게 눈을 치켜뜨고 곧곳이 서서 제 자랑을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두려워합니다.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며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재판관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 16,12-15)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한참 나이 들고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인들이 하는 말씀 중 가장 듣기 싫은 게 “너도 늙어봐라.”나 “너도 겪어보면 알게 될 거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인간사나 사물의 간단한 이치도 연륜이 쌓여 스스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요. 아마 노인네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젊음의 오만과 미숙 때문이었을 테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젊었을 때 지겨워하며 들은 노인들의 잔소리와의 닮아 있는 것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세상사의 문리 이전의 좀 더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사의 문리를 터득하는 것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듯이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 하십니다.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깨친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신 도도 진리가 아니었을까요. 공자님께 게도 진리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보통 사람에게 진리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진리에 매달리느니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에 힘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짓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선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성령체험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진리를 보통 사람의 인식을 초월한 곳에 매달아 놓고 즐기시는 분이려면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품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위안과 평화를 얻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나이 칠십이 임박해지면서 달라진 건 풀숲에서 살아 숨 쉬는 작은 들꽃과 미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안과도 같은 깊은 감동입니다. 그것들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가히 성서 첫 장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창조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의 경지입니다. 칠십 년을 살고 비로소 성서 첫 장을 이해하다니, 저는 지진아입니다. 그러나 이런 늦은 깨달음이나마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비 체험은 생전 처음이거든요.

이 체험이야말로 삼위일체의 기쁨이 아닐는지요. 이건 저의 성령 체험이고, 성령은 저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물이 대양에는 가없이, 항아리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종지에는 종지 모양으로 담기듯 성령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각양각색으로 임하는 게 아닐까요.

공지 사항

* 손님 신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캔버라 성당을 방문해주시고, 미사를 함께 봉헌해주신 신부님들 환영합니다!

- Fr.박효식 사도요한 (대전교구 공주 신관동 보좌)
- Fr.김수형 필립보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보좌)

1. 여정 '시즌 6' - 영적독서 모임 안내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함과 세례명을 보내주세요).

-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에 있으며, 책 주문 및 배송이 완료되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영적 독서 모임과 별개로 책만 따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책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은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12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4명
10월 19일	유아·청소년: 23명	성인: 47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0월 26일)	요한반
다음주 (11월 2일)	루카반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18일 ~ 10월 24일)

봉헌금	\$ 230.50			
교무금	\$ 590			
강희주	구민식	권묘순	양홍석	윤현태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원미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